



http://council.gangwon.kr

강원도의정

월간 강원도의정 제132호
2015년 8월 26일 수요일
발행처: 강원도의회

발행인 강원도의회 의장 김시성
편집인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한만수

Gangwon Council Activities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의회 TEL. (033)249-5169 FAX. (033)255-8167 kis1207p@korea.kr 인쇄: 강원일보사 출판기획국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개최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롭게 구성



강원도의회(의장:김시성)는 7월 21일 강원도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였다.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는 2015년 7월 7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기에는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 도청과 교육청의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또한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윤미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 장석삼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령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 박길선 의원 외 21명이 발의한 “강원도 교통안

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김규태 의원 외 16명이 발의한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재웅 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지사 제출 의안 10건, 교육감 제출 의안 9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시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9대 강원도의회 출범이후 강원도민의 행복 증진과 강한 의회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고, 성과도 거두었음, 이렇게 민생현장 중심의 생활의정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준데 대하여 수고 많으셨다”라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생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의정을 강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정성을 쏟겠다”고 했다.

2014회계연도 도 및 교육청의 결산규모는 도청 소관이 약 4조 5,004억원이고, 도교육청 소관은 약 2조 5,544억원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원도의회에서는 이번 결산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찾아내어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

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강원도의회에서는 지난 5월 22일에 도의원3명(김용래 의원, 신영재 의원, 강청룡 의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 총 9명을 결산감사위원으로 위촉하였고 5.22~6.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제9대 제2기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신영재 의원, 부위원장에 이종주 의원을 선임하고, 2014회계연도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였다.

제 132호 지면안내

- 제247회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2면
- 5분 자유발언 3·4·5·6면
- 인사청문회 업무협약 체결/우수 의정대상 수상 6면
- 도·시군의원 1인시위/조직·인력 재정비 7면
- 1주년, 의정성과와 과제 8·9면
- 의회운영/기획행정/사회문화위원회 10면
- 농림수산/경제건설/교육위원회 11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2면
-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13·14면
- 의원동정 15·16면

성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GANGWON PROVINCIAL COUNCIL



제247회 정례회 주요안건 처리현황

강원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신설된 재난안전실을 기획행정 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명칭 변경

강원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 제 안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매월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세목별 징수 내역과 함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 예산액과 결산액에 대한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유산 또는 사산휴가 부여, 재직기간(20년 이상)에 따른 장기재직자 휴가 일수 확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행정부지사 소관 사무인 건설 교통국을 경제부지사로 이관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을 축소, 물류단지 등,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신설,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조정 등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제 안 자 : 박윤미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 법안·단체에 대하여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기금의 설치 근거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 재해구호계정 용도를 재해구호법 용도에 맞게 수정·추가, 사회복지계정 용도에 저출산 대책사업 지원을 추가 규정 등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

- 제 안 자 : 장석삼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연안활동시 사전신고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지만, 이는 개인의 레저활동을 법으로 규제하는 등 관광사업 위축을 우려한 관련업계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어,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제를 철폐해 줄 것을 촉구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안

- 제 안 자 : 박길선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교통안전, 교통사고,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등 조례의 용어 정의 등

강원도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제 안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제정 목적, 도의 책무, 분야별 중소기업 사업 지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김규태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노사민정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존중의 책무 규정,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등

강원도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안 자 : 정재웅 의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 승인취소 동의비용을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로 규정,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범위 규정 등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도지사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도지사는 정보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

- 제 안 자 : 교육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주요내용 :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규정, 교육복지 지원 대상 규정,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등

강원도교육청 생태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자 : 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체험중심의 다양한 생태환경 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을 천명,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 규정 등

강원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안 자 : 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중·고등 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면제, 징수방법 및 반환규정에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규정 명시 등

2015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 제 안 자 : 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신남 중·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경포여자중학교 체육관 신축

2015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안

- 제 안 자 : 교육감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주요내용 : 발행금액(38,105,353천원), 지방채 종류(차입금), 발행내역(공·사립 유치원 유아학비·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보육료·방과후과정비) 등

5분 자유발언

강원도 인사행정과 관련

제247회 정례회 / 1차 본회의 / 2015. 7. 7.(화)



오 세 봉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강릉시 제2선거구

인사행정이란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는 모든 조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입니다.

인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현재 강원도정의 인사행정은 체계가 없이 마구 흩어져 갈피를 잡을 수 없는 형국처럼 보입니다.

도립대 총장은 전임 총장이 사퇴한 이후 적임자를 물색했지만 역량 부족을 이유로 부적격 결론을 내려 6개월째 공석인 상태로 있다가 새로운 총장이 임명되었지만 매끄럽지 못한 일처리로 대학은 물론 지역 사회의 반발을 야기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 1월에는 유능함을 인정받던 2급 이사관이 소속기관인 도청에 자

리가 없어 부이사관으로 강임하여 부시장으로 내려간 일도 있고, 도의 정책 발굴과 연구과제 수행 등 씩크 탱크 기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이사관을 도 산하기관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파견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국장급 인사에서 또 다른 이사관을 바로 그 산하기관으로 파견을 보낸 것입니다.

퇴직까지 1년 6개월이나 남아 있는 이사관 2명을 같은 조직으로 보내 일 없이 세월만 보내고 도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할까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이것이 강원도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실행능력을 인선의 최우선 기준으로 둔다는 최문순 도정의 모습입니까?

도민들을 위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경제 활성화는 도대체 언제 이를 것이며 강원도의 경쟁력 강화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또한 조직의 안정과 성과를 극대화시키겠다는 지사님의 신념과 목표의식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농지불법 전용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 동시 시행촉구

제247회 정례회 / 1차 본회의 / 2015. 7. 7.(화)



신 도 현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홍천군 제2선거구

농림수산부는 1988년 11월 4일 농지 불법전용 억제 및 처리대책에 따라 1988년 10월 31일 이전 농지 불법전용에 대하여는 주인 또는 양성

화 조치를 시행하였지만 그 이후의 농지 불법전용에 대하여는 고발 후 벌금 등 형사 처분을 했고 형사 처분 이후에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등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1988년 11월, 양성화 지침 시행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불법전용 농지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 시행을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980년부터 201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특별법을 시행하여 무허가 위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2013년 7월 특별조치법을 공포하여 2014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었으나 특별법을 추진하면서 당시 농지를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가 되지 않아 대지가 아닌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농지의 양성

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농촌지역 주민들이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서도 양성화 조치가 함께 시행되었어야 함에도 농지의 불법전용은 양성화 제도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당초 특별조치법의 도입 취지에 비춰보면 이는 결코 공정한 법 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무허가 위법 건축물과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양성화 특별조치가 동시에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드리는 제언

제247회 정례회 / 1차 본회의 / 2015. 7. 7.(화)



함 종 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횡성군 제2선거구

항간에는 다면평가가 안면평가, 여론재판으로 변질되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평가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

이 그동안의 친분, 또는 같은 부서 소속이라는 이유로 순위를 정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 결국은 업무추진 능력보다는 인기 있는 직원과 소위 노른자위에 있는 부서에 치중하게 되는 이런 평가가 과연 합당하고 바람직한 것입니까?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신임 건설교통국장 인사를 위해 토목직 하위 직원들에게 어느 법에도 없는 적임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거기다가 승진대상자

전원이 아니라 단 2명만을 콕 집어서 여론조사를 실시, 인사에 반영하였는데 이러한 인사가 잘 된 인사인지, 아니면 지사님이 인사권을 포기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인사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발탁인사의 경우 조직원들이 공감 못 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그 폐해에 대해 누누이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하여 많은 얘기가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 기획

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6일 소방안전본부를 상대로 긴급현안 질의를 했고 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강원도 소방헬기 구조된 인원은 자그마치 1,740명입니다. 하루 평균 7.5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소방헬기 구입이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외국산이든 국산이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기에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에 신입생(2016년)을 위한 기숙사를 신축해야 한다. 제247회 정례회 / 1차 본회의 / 2015. 7. 7.(화)



이 문 희 의원

교육위원회 / 원주시 제3선거구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는 구 부론고등학교가 원주지역 평준화 공동학군에서 제외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체제를 개편하여 현재 1, 2학년 각 1학급씩 총 51명의 학생들을 글로

벌 시대의 금융회계 인재로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강원도교육청이 마이스터고등학교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 취지와 교육 목표에 공감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관심 또한 뜨거워 올해 신입생 모집에서 경쟁률이 2:1을 넘어섰으며, 신입생들의 성적은 중학교 내신 40% 이내로, 전국의 어느 특성화고등학교보다도 우수한 인재들이 입학하여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는 원주 시내에서 시내버스로 한 시간 이상이

걸릴 정도로 교통이 불편하여 지역 학생 몇 명을 제외한 전교생이 기숙사에 입사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숙사의 규모는 현재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 신입생 25명을 위한 기숙사를 증축해야 할 실정입니다.

만약 기숙사 증축이 어려울 경우 타 시·군에서 입학한 학생들은 연고지가 없어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내보낼 수도 없고 신입생을 받기도 어려운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체제 개편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이미 투자

된 수십억 원의 예산과 금융회계 분야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훌륭한 인재가 되고자 의지와 열정에 가득 찬 아이들이 이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강원 교육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경에서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예산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16억 원의 예산만 확보된다면 곧바로 공사를 진행시켜 금년 말 증축공사가 완공 가능할 것입니다.

부디 원주금융회계고등학교의 기숙사 증축 예산 편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강원도, 작은 학교가 답이다.

247회 정례회 / 1차 본회의 / 2015. 7. 7.(화)



조 영 기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양구군

정부는 지난 5월 13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고 60명 이하 작은 학교는 통폐합할 것을 권

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접경지역, 폐광지역 등 농산어촌이 많은 강원도는 전체 학교의 40%가 통폐합 대상이 됩니다.

강원도 내 초·중·고교 673개 가운데 270개 교가 인근 학교와 합쳐지거나 사라질 것입니다.

초등학교는 394개 교 가운데 195개 교, 중학교는 162개 교 가운데 60개 교, 고등학교는 117개 교 중 15개 교가 통폐합 대상입니다.

2000년대 들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한 취학 아동 수로 인해 도내 상당수의 초등학교는 이미 통폐합

이 이루어져 왔는데 폐교된 지역은 단순히 학교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마을의 공동화 현상으로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이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농산어촌 지역 작은 학교 학생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이 많으며 최근 들어 다문화 가정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생업으로 바쁜 부모들은 시간적 문제와 현실적 여건으로 학업, 생활 지도, 특기적성 교육 등 전반에 대해 학교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농산어촌 지역 학교는 학교를 넘어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합니다.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의 슬로건처럼 개인, 가정, 지역사회, 국가는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지역이 행복하려면 우리 마을에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는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강원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항의와 대응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동해·묵호항 활성화에 관한 제언

제247회 정례회 / 2차 본회의 / 2015. 7. 21.(화)



김 규 태 의원

경제건설위원회 / 동해시 제1선거구

동해·묵호항은 북방교역 중심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도심과 연결되어 있어 수십 년 간을 고질적인 공해민원으로 주민들이 집단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 등 혐오시설

의 상징으로 되어버렸습니다.

동해·묵호항을 '북방교역 중심항만, 북극항로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강원도의 정책 목표가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동해·묵호항에 대해 항만 전문가들은 북방물류 시대를 위한 강원도 미래경제의 심장이자 자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3성의 동해 출구 전략과 러시아 연해주의 경제개발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 울산항, 그리고 포항항은 공격적 마케팅을 벌이면서 항만 경쟁력을 높이

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해·묵호항의 지정학적 우위를 잘 살려 북방교역 중심 항만으로 적극 개발해 나간다면 대한민국 중심 항만으로서의 위상을 선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해·묵호항이 일부 주민의 의견으로 개발논의가 중단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강원도의 미래인 북방교역 중심 항만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해항 3단계 확장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둘째, 동해항의 항만물류부지가

매우 부족합니다.

셋째, 현재 설계된 광물전용 부두 중 일부를 잡화부두로 전환해야 합니다.

넷째, 벌크화물의 친환경 컨테이너시설 건설이 절실합니다.

다섯째, 강릉~동해 간 동해북부선 복선화, 국도38호선 연장, 국도 42호선 도로확장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집행하여 북방루트 허브항만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도내 메르스 발생과 관련하여

제247회 정례회 / 2차 본회의 / 2015. 7. 21(화)



심 영 섭 의원

사회문화위원회 / 강릉시 제선거구

강릉의료원은 국가지정감염병의
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내에
발생하는 메르스 확진자를 음압병
동에 수용해야 했으며 더 심각한
것은 병원 밖으로 메르스균이 새어

나온다는 루머까지 나돌아 강릉
의료원 근처에 사는 주민들과 환자
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며 급기야는
외출까지도 삼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강릉의료원의 간호과
장이 확진 판명 되면서 강릉의료원
을 방문했던 강릉시 의원들과 도내
메르스 사태를 총괄 지휘하던 이지
연 국장님, 간부공무원 등이 격리
되는 등 강릉시는 모든 행사를 무기
연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강릉시는 메
르스방역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
하면서 격리자들을 모니터링 하
고 의심자가 발생하면 춘천으로 하

루에 두 번 검사물을 운송하고, 수
거한 레벨디(D) 보호복과 장갑, 엔
(n)95마스크 등 의료용품을 공급
하느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정책을 위하여 집행
부에 세 가지 현안사항을 촉구하고
자 합니다.

첫째, 강원도의료원이 메르스 사
태로 인해 그동안 진료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액에 대한 보전금과 공
공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
기 위해 발생하는 적자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릉에 있는 보건환경연구
원 동부지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
도록 검사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동해와 그리고 양양국제공항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으로부터
메르스와 같은 새로운 감염병이 발
생하지 않도록 검역시스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강원도 산하 각 시·군 보
건의소의 기능도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하여 더 한층 강화되어야 될 필요
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
관의 마지막 보루인 도 산하 5개 도
립의료원의 기능도 강화할 필요성
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도지사·교육감·도의장·도운영위원장에게 드리는 긴급제안

(도금고 농협과 신한은행은 예금·기금 금리를 인상하고 채무금리는 인하하라!)

제247회 정례회 / 2차 본회의 / 2015. 7. 21(화)



강 청 룡 의원

농림수산위원회 / 춘천시 제4선거구

지사님과 우리 교육감님은 강원
도민의 혈세인 금고지기로써 곳간
의 열쇠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곳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

리고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금고지정 및 운
영규칙에 의거하여 농협과 신한은
행에 금고를 맡기고 있습니다. 기금
에 변동금리를 적용하다 보니 이율
이 낮아지고 있어, 기금 본연의 사
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금마다 계좌 수가 틀리니, 조속
히 통폐합하여 높은 금리로 변경하
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5월 27일 현재 강원도 채
무는 1,900여억 원 정도 되고, 금리
는 3.77%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니다. 대출금리가 3.16%, 3.21%,
3.31% 이것도 말도 되지 않는 금리
입니다.

다음은 한국은행 금리 변동사항
입니다. 2001년부터 2015년 6월 10
일까지의 금리 변동사항인데 2008
년에는 4%~5% 대의 금리가 2015년
6월 11일을 기준으로 1.5%까지 인
하된 사항입니다.

강원도 금고가 과연 이 변동금리
에 제대로 이율을 적용받았는지 의
심이 갑니다.

기금사업은 실·국장님들의 사업
이니, 금리변동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금고 현황과 관련하여 예
산과나 세정과,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 분들을 불러서 별도
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통한 의
원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채무금리는 1.5% 인하해야 되고,
기금은 0.3% 인상해야 됩니다.

지방자치 20년에 회고

제247회 정례회 / 2차 본회의 / 2015. 7. 21(화)



구 자 열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원주시 제4선거구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
써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기
틀이 마련됩니다.

하지만 1961년 군사정권의 출범으

로 인한 지방자치 중단과 조국통일
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의회를 구
성하지 않는다는 '72년 유신헌법
제정으로 30년의 암울한 역사는
흘러갔습니다.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 시대
변화에 따른 정치권의 장악으로
1991년에 지방의회가 출범했고, '95
년엔 광역과 기초단체장을 비롯 통
합 4대 지방선거를 실시, 지방자치
가 새 출발하였습니다.

강산이 두 번이 바뀐 지난 7월, 어
렵게 이뤄낸 지방자치 재 부활 20년
을 맞이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를 외면한 채 중앙의 성장만이 지
방을 살릴 수 있다는 전근대적 발
상의 정책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재정분담비율의 불균형, 수도권
규제완화,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
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
합, 누리과정예산 전가, 대학 구조
조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방의 가치와 자율성을 침해하
고 있는 중앙정부의 반분권적 추진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상생과 발전의 원리인 지방자치
제도를 완성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경제, 행정시
스템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되

어야 합니다.

성년의 시기를 맞이한 지방자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 신장을 향상시
키고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잠
재적 재원과 능력을 극대화하는 목
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선진국 수준의 국가체제
로 발돋움하고 강한 국가를 유지하
기 위한 조건인 분권적 지방자치제
도 정착을 위해 존경하는 김시성 의
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리고 최문순 지사님과 민병희 교육
감님을 비롯한 모든 도민 여러분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강원 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드리는 제언

제247회 정례회 / 2차 본회의 / 2015. 7. 21(화)



김기홍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 원주시 제2선거구

GRDP와 GRNI의 차이인 한 해 약 3조~4조 원의 역외유출을 막아 보자는 의도에 존중과 동감을 표하지만 이를 강원화폐 발행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시도에는 미심(未審)과 거부감이 듭니다.

오늘날 산업구조는 글로벌이란 단어가 일상화되었을 정도로 복잡하고 강원화폐를 도내 어디에서나 쓸 수 있을 만큼 시장이 단순하지 않으며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환전이 쉽지 않고 금융거래 시 불편한 화폐를 굳이 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전라북도 봇짐장수가 강원도에 들러 강릉서 굴을 팔고 받은 외지사용이 불가능한 강원엽전으로 서울 가는 길 횡성서 삼계탕을 먹고 원주서 짚신을 사갔다면 돈의 역외유출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대 전북 굴 도매상이 강릉서 굴을 납품하고 받은 강원화폐로 횡성서 삼계탕을 먹고 원주서 운

동화를 사간다면 상당비용이 닭 유통 1위 하림이 있는 전북과 각 재료 원산지로 가고 OEM 신발생산국과 상표 로열티 국으로 흐를 것입니다.

역외유출 주원인이 제품소비지가 아닌 원료지, 생산지, 본사처럼 제품출신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강원감영에서 강원엽전을 유통시킨다고 도내 곳곳에 방을 붙였으면 단순한 산업구조에서 장사하던 몇 안 되는 모든 가게가 쉽게 망했을 것이고 도민들도 기꺼이 강원엽전을 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통화로 금융기관에 판매금을 안전하게 저금하고 월말 전국 각지로 후불결제를 해 주는 오늘

날의 수십만 도내 사업체들이 전체가 망할 것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또 지역화폐의 장점을 살리려면 중앙통화와 환전이 불편해 돈이 돌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는 강원화폐를 사용처, 구매물품 제한에 환전조차 어려운 상품권처럼 느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점차 선물용으로만 쓰는 상품권만큼만 유통될 것이고 화폐보다 강원상품권 정도로 여겨질 것입니다.

역외유출 완화정책을 펴려면 되도록 지역생산 제품을 소비하도록 도민의식을 바꾸고 새로운 지역기업들을 창출해 외지품을 대체할 지역제품을 늘려야 합니다.

강원도 - 강원도의회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업무협약 체결

- 3개 기관장 : 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원산업경제진흥원장



민선 6기 및 제9대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우선 강원도 산하기관장 3개기관(강원도립대학총장,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강원산업

경제진흥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7월 1일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최문순 도지사와 김시성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간의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실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이번 인사청문 업무협약은 지난 3월 “일일 명예의장 및 명예도지사 운영”시 김시성 의장이 “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제안을 최문순 도지사에게 요청하여 강원도가 이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는 2016년부터 실시하게 된다.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강원도의회에서 실시하는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인 만큼, 강원도와 도민에게 무한히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기관장을 선임하는데 도움이 될 것과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인사청문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장세국 의원 · 최성재 의원, 우수 의정대상 수상



장세국 의원과 최성재 의원이 지난 8월 12일 전국 시·도의장협의회로부터 올해의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우수의원에게 수여된 것이다.

대통령 공약사항 조기 이행 촉구를 위한 「도·시군의원 1인시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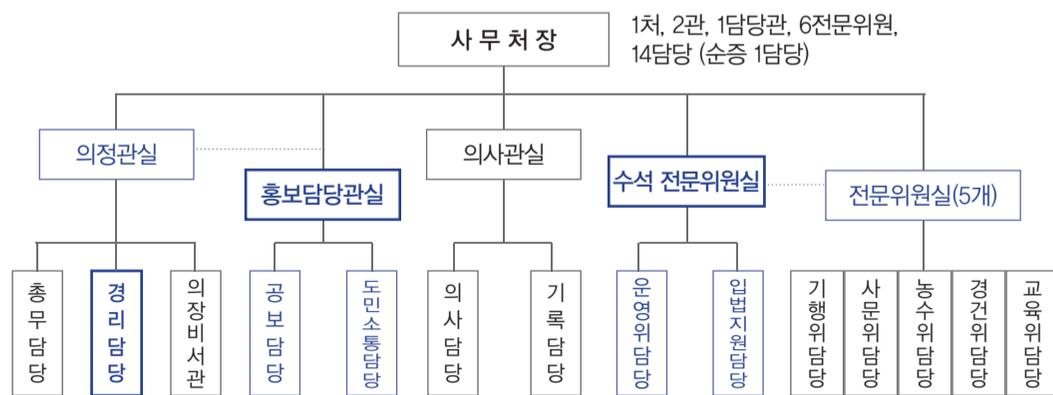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강원도의 오랜 숙원사업인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복선전철」건설 조기 이행 촉구를 위한 도·시군의회 의원 1인 시위를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7일까지 기획재정부 앞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1인시위에는 강원도의회(의장:김시성) 의원과 5개시군(원주,속초,양구,인제,화천)의회 의원이 참여하였다.

강원도의회사무처 조직·인력 재정비 단행

- 수석전문위원실 운영, 홍보담당관실 신설, 전문인력 채용



원 13담당직제를 1처 2관 1수석전문위원 1담당관 5전문위원 14담당으로 직제를 재정비 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조직·인력 재정비는 일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전문위원실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주무적 기능의 '수석전문위원실' 운영, 도민과의 소통과 홍보 전문성 확보를 위한 '홍보담당관실' 신설, 도의원들의 입법지원을 적

지난 7월 22일 강원도의회사무처는 조직·인력 재정비를 단행하였다. 최근, 다양한 의정활동, 다수의 행사, 의안처리 수요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강화하고,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각 위원회 활동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해 기존 1처 2관 1담당관 6전문위

급 돕기위한 '입법 전문인력 채용', 체계적인 계약 및 회계업무 수행을 위한 '경리팀'을 신설하였다.

이번 조직 재정비를 통해 강원도의회사무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제9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1주년, 의정성과와 과제



의정대표협의회

2014년 7월 출범한 강원도의회는 「심기는, 일하는, 가까운」 의회라는 제9대 강원도의회의 의정목표 실현을 위해 어느 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소통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공정한 예산심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활동에 충실하였다.

강원도의회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와 춘천~속초 고속철도, 여주~원주 복선전철의 조기추진을 위해 국회, 중앙정부, 동계올림픽 조직위를 찾아가 도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역 언론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청회

활발한 입법활동 및 우수사례

제9대 강원도의회 출범 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22건으로 지난 1년간 임시회 7회, 정례회 2회 등 총 9회의 회의가 열린 것을 보면, 1회기당 평균 2.4건의 의원입법 조례가 발의·상정 되었으며, 제9대 도의회 출범 이후 모든 의원들이 각 분야별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례 제정의 질적인 면에서도 서민생활 안정 및 민생현안에 대한 밀접한 조례들로 발의된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강원도 농어촌 LPG공급시설 지원 조례', '강원도 석면스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 조례', '강원도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 조례' 등이 다수 제정되어 도민들의 권익과 건강증진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였다.



강원도의회 의원연구회 창립 총회

연구와 연찬활동으로 전문성 강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주요시책 및 지역개발 등 특정분야에 관하여 의원들이 자율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의원연구회」가 제9대 도의회 들어 현재까지 6개의 연구회가 구성되어 능동적인 현장중심의 연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도정질문



견제기능 강화와 도정진단, 대안제시

도민의 대변자이자 집행부와 함께 지방자치의 한 축을 이루는 도의회는 매년 2~3회에 걸쳐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도정 질문을 실시하고 있다. 제9대 전반기 도의회 출범 이후에도 총 3회에 걸쳐 29명의 의원이 도정질문을 하였다. 주요 질문내용을 보면 양양공항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기후변화대응센터 조직설립과 운영,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조직혁신 방안, FTA협상에

따른 강원농업의 대응방안 등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많은 내용들이 다루어 졌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2014. 11. 11. ~ 11. 24까지 69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1,154건의 감사요구 자료를 바탕으로 6개 상임위원회 감사 실시결과 413건을 시정조치하여 도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와 정책개발 및 대안제시의 감사를 실시하였다.



제244회 기획행정위원회 민생체험 봉사활동



제246회 농림수산위원회 현지시찰

민생탐방을 통한 현장중심 의정활동 강화

현장에서의 지역현안 및 애로사항과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기 위해 2015년 2월 의장단에서는 속초관광수산물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2015년 4월에는 안전·복지실태를 점검하고자 기행위가 태백의 365세이프타운과 대한적십자사 태백지구협의회를 방문하였고, 사문위는 원주 밥상공동

체를 방문하여 음식 조리지원과 복지관 종사자와의 간담회를 가졌고, 농림수산위원회는 고성 현내면 저진리 앞바다의 동해안 최전방 저도어장과 강원도오징어가공업협동조합을 현지시찰하였으며, 경건위는 평창의 대관령풍력단지를 찾아 신재생에너지사업 시설과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살폈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임남규)는 제247회 정례회 기간중 7월 7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제24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의 결 하였고 7월 8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의회사무처 소관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강 / 원 / 도 / 의 / 회

기획행정위원회



-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함종국)는 7월 7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사일정 결정의 건 원안처리 후, 7월 9일부터 7월 15일까지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 실국의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강 / 원 / 도 / 의 / 회

사회문화위원회

-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김금분)는 7월 8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7월 14일까지 4차례의 회의를 통해 집행부 해당 실국의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가 하면, 상정된 안건 중 박윤미 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안의 보조금지원 대상에서 '관련 법인·단체'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농림수산위원회

-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권혁열)는 제247회 정례회 기간중 집행부 해당실국의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 및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장석삼 의원이 발의한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규제 철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였다.

강 / 원 / 도 / 의 / 회

경제건설위원회

-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규태)는 제247회 정례회 기간중 상임위에 부의된 안건 ‘강원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노사민정활성화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 관련 실국의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강 / 원 / 도 / 의 / 회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회(위원장 이문희)는 제247회 정례회 기간 중 6차례의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위에 상정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강원도교육청 교육복지 조례안’을 내용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강원도교육청 언론·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선관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봐 조례안 심사를 계류하였다. 또한, 해당실국의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의 건 심사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위원회 활동

강 / 원 / 도 / 의 /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9대 강원도의의회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6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결산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 활동을 하게 된다. 기획행정·사회문화·농림수산·경제건설·교육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3명씩 선임하여 15명으로 구성된 예결특위는 7월 16일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신영재의원, 부위원장에는 이종주의원이 선임되었다. 또한 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2014회계연도 강원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하고, 17일에는 2014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 가결했다.

제9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활동기간 : 2015. 7. 7 ~ 2016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신 영 재
(새누리 / 흥천)



이 종 주
(새정치민주연합 / 춘천)



김 동 일
(새누리 / 철원)



오 세 봉
(새누리 / 강릉)



정 재 응
(새정치민주연합 / 춘천)



진 기 엽
(새누리 / 횡성)



남 경 문
(새누리 / 정선)



유 정 선
(새누리 / 춘천)



최 성 현
(새누리 / 춘천)



홍 성 욱
(새누리 / 태백)



곽 영 승
(새누리 / 평창)



김 기 철
(새누리 / 정선)



남 평 우
(새누리 / 인제)



심 영 곤
(새누리 / 삼척)



원 강 수
(새누리 / 원주)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 2015. 7. 7 4대폭력 예방교육 구성에 대표 초청 특별강연



● 2015. 7. 8 제21회 강원도민의날



● 2015. 7. 15 춘천~속초, 여주~원주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 촉구 시위



● 2015. 7. 21 강원도의회 저출산·고령화 극복방안 연구회 초청강연



● 2015. 7. 22 강원도의회 인사발령자 의장 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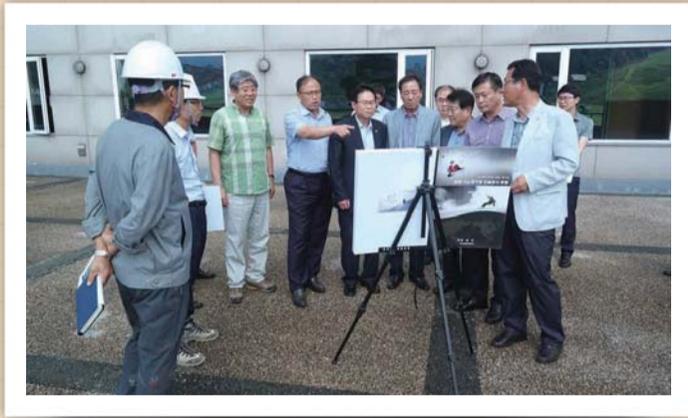
● 2015. 7. 23 강원도의회 지역문화예술축제활성화 연구회 현장답사



● 2015. 8. 7 찾아가는 예산정책 협의회



- 2015. 7. 30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현지실사



- 2015. 8. 4 제8기 어린이법제관 강원지역 기관탐방 퀴즈대회 예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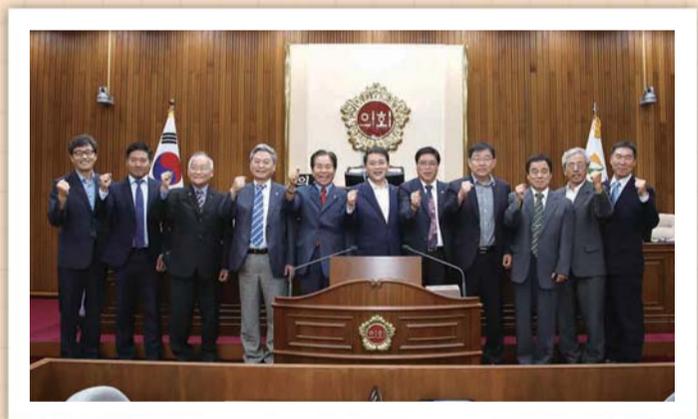
- 2015. 8. 13 제5회 한국쌀전업농 강원도연합회 회원대회



- 2015. 8. 11 나가노현 지사 방문단 강원도의회 방문



- 2015. 8. 14 국제협력자문관 의회 방문



- 2015. 8. 18 의장단 을지연습장 방문 격려



- 2015. 8. 21 강원도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학생 의회 견학



의원동정



▲ 김성성 의장은 7월 14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춘천~속초&여주~원주 철도(전철)건설 이행 촉구 1인 시위 참여, 7월 22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도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였다.



▲ 김규태 경제건설위원장은 7월 1일 춘천에서 열린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공사 기공식'에 참석, 7월 7일 춘천 제일 시장에서 열린 '메르스 극복 유관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하였다.



▲ 남경문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위위원장은 7월 8일 강원대에서 열린 '제21회 강원도민의 날 경축 기념식'에 참석, 7월 23일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2015 대관령국제음악제 환영리셉션'에 참석하였다.



▲ 김동일 부의장은 7월 8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제21회 강원도민의 날'에 참석, 7월 21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 극복방안 연구회 전문가 초청 강연회'에 참석하였다.



▲ 이문희 교육위원장은 7월 4일 원주 단계동에서 열린 '원주권 지방의원 협의회'에 참석, 7월 16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춘천~속초&여주~원주 철도(전철)건설 이행 촉구 1인 시위에 참여하였다.



▲ 강청룡 도의원은 7월 23일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열린 '강원도어촌지도자협의회'에 참석, 7월 31일 사북면사무소에서 열린 '사북면과 서울 중계4동 주민자치위원회 도농자매결연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 권석주 부의장은 7월 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도의회-강원도청 간 인사청문 협약식'에 참석, 7월 30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열린 '강원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관련 위원회'에 참석하였다.



▲ 신영재 예산결산특위위원장 7월 8일 흥천 마을회관에서 열린 '성동 1리 산소길 걷기대회 발대식'에 참석, 7월 31일 흥천 토리숲에서 열린 '제19회 옥수수축제 개장식'에 참석하였다.



▲ 박영승 도의원은 7월 29일 평창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조선왕조실록 의궤 환수를 위한 지역현안 토론회'에 참석하였다.



▲ 임남규 운영위원장은 7월 28일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 7월 30일 영월 동강시스타에서 열린 '2015년 하계 도의회 운영위원회 연찬회'에 참석하였다.



▲ 오세봉 2018 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위위원장은 7월 8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 7월 30일 평창, 정선지역을 방문해 '지역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 김기철 도의원은 7월 2일 속초 마레몬스호텔에서 열린 '강원도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세미나'에 참석, 7월 20일 도청에서 열린 '소아암 어린이 돕기 비행기 끌기대회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 함종국 기획행정위원장은 7월 28일 횡성 둔내면사무소에서 열린 '새마을공동체 운동 추진회의 발대식'에 참석, 7월 30일 횡성 청일면 춘당2리 하천에서 열린 '새농어촌 다슬기 방류행사'에 참석하였다.



▲ 구자열 분권특위위원장은 7월 16일 원주 단구동에서 열린 '여성가족공원 준공식'에 참석, 7월 22일 원주 흥업면 일원에서 열린 '가뭄피해 지역 농촌일손돕기'에 참석하였다.



▲ 김기홍 도의원은 7월 15일 원주 '중앙동 자율방범대 월례회'에 참석, 7월 23일 원주 다박골 식당에서 열린 '원인동 관내 경로당 운영관리자 오찬'에 참석하였다.



▲ 김금분 사회문화위원장은 7월 17일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열린 '제16회 춘천시 여성대회'에 참석, 7월 24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오페라 갈라 콘서트'에 참석하였다.



▲ 장세국 접경지역발전특위위원장은 7월 17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춘천~속초&여주~원주 철도(전철)건설 이행 촉구 1인 시위 참여, 7월 25일 화천 봉어섬에서 열린 '족배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였다.



▲ 김성근 도의원은 7월 21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 7월 22일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5년도 강원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였다.



▲ 권혁열 농림수산위원장은 7월 1일 강릉 세인트컨벤션에서 열린 '국제로타리 제28, 29대 총재 아·취임식'에 참석, 7월 27일 강릉 교통택지 음식점에서 열린 '사천초등학교 총동문회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다.



▲ 이정동 장애인복지특위위원장은 7월 2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열린 '강원 여성정책포럼'에 참석, 7월 29일 도청 본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도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에 참석하였다.



▲ 김연동 도의원은 7월 12~13일 동해시 평생학습관에서 개최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 7월 22일 대구두류공원 일대에서 개최된 '대구 치맥페스티벌'을 방문하였다.



▲ **김용래** 도의원은 7월 28일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열린 '2018평창올림픽 경기장 시설 사후활용 자문위원 위촉식'에 참석, 7월 31일 경포해변에서 열린 '제14회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에 참석하였다.



▲ **심영섭** 도의원은 7월 6일 강릉 내곡동자치센터에서 열린 '내곡장학회 장학생선발회의'에 참석, 8월 10일 강릉 내곡자치센터에서 열린 '내곡동 자치위원회'에 참석하였다.



▲ **조영기** 도의원은 7월 1일 양구 강원외고 인근에서 열린 '양구교육지원청 에듀버스 개통식'에 참석, 7월 16일 양구 중앙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장보기 및 시장상인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김용복** 도의원은 7월 10일 정선에서 열린 '백두대간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개장식'에 참석, 7월 30일 고성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열린 '제15회 걸스카웃 국제야영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였다.



▲ **안상훈** 도의원은 7월 23일 춘천디아펠리츠에서 열린 '제8회 강원굿모닝 CEO학습'에 참석, 7월 25일 춘천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춘천 코리아 오픈 태권도대회'에 참석하였다.



▲ **진기엽** 도의원은 7월 23일 횡성 매곡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매곡리 효잔치 및 마을단합대회'에 참석, 7월 31일 원주 드림랜드에서 열린 '사랑나눔 봉사회 여름방학 캠프'에 참석하였다.



▲ **남평우** 도의원은 7월 3일 인제군 시가지 일원에서 열린 '국토대청결 환경정화 활동'에 참석, 7월 23일 인제읍 사무소에서 열린 '2015년 제1차 농정협의회'에 참석하였다.



▲ **오원일** 도의원은 7월 1~2일 울릉도에서 열린 '동해시 지역사회 실천협의회 워크숍'에 참석, 7월 29일 강원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에서 열린 '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동해시사무 임원 회의'에 참석하였다.



▲ **최명서** 도의원은 7월 21일 영월군청에서 열린 '민주평통 자문회의 영월군협의회 제17기 출범회의'에 참석, 7월 28일 영월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영월고추 신품종 평가회'에 참석하였다.



▲ **박길선** 도의원은 7월 2일 원주 백운아트홀에서 열린 '원주시 2분기 모범단체 정기포상식'에 참석, 7월 20일 원주 문막읍사무소에서 열린 '문막읍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였다.



▲ **원강수** 도의원은 7월 6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지역언론 지원조례 관련 토론회'에 참석, 7월 21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였다.



▲ **최성재** 도의원은 7월 18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8회 원주시장기배 장애인 탁구대회'에 참석, 7월 24일 원주 용수골가든에서 열린 '원주시 이통장협의회 하계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 **박윤미** 도의원은 7월 6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지역언론 지원조례 관련 토론회'에 참석, 7월 31일 대관령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초원문화 페스티벌'에 참석하였다.



▲ **유정선** 도의원은 7월 15일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춘천~속초&여주~원주 철도(전철)건설 조기이행 촉구 1인 시위'에 참여, 7월 22일 '대구 치맥축제'현장을 방문하였다.



▲ **최성현** 도의원은 7월 14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선수단 유공자 시상식'에 참석, 7월 27일 춘천 시민복지회관에서 열린 '여성인권 공동체 행사'에 참석하였다.



▲ **박현창** 도의원은 7월 7일 평창 평창강 일원에서 '행락철 야영객 실태'를 점검, 7월 15일 '평창~제천 간 국지도 82호선 조기 추진 건의'를 위해 세종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하였다.



▲ **이종주** 도의원은 7월 21일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지역대학 발전방안 모색 심포지엄'에 참석, 7월30~31일 국회에서 열린 '2016 강원도 국비 확보를 위한 새정연 예산간담회'에 참석하였다.



▲ **한금석** 도의원은 7월 8일 강원대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린 '강원도민의 날 경축 기념식'에 참석, 7월 21일 강원도의회에서 열린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였다.



▲ **신도현** 도의원은 7월 30일 흥천 화촌면 장평리 고추재 배농가를 방문하여 '일손돕기 및 애로사항'을 청취, 7월 31일 흥천읍 토리숲공원에서 열린 '제19회 흥천찰옥수수축제 개장식'에 참석하였다.



▲ **장석삼** 도의원은 7월 10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설악산 국립공원 사도설치 관련 시민·환경단체 공청회'에 참석, 7월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친환경 케이블카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하였다.



▲ **홍성욱** 도의원은 7월 2일 속초에서 열린 '강원도의회 의정발전 연구회 세미나'에 참석, 7월 15일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춘천~속초&여주~원주 철도(전철) 건설 이행 촉구 1인 시위에 참여하였다.



▲ **심영곤** 도의원은 7월 2일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열린 '강원도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세미나'에 참석, 7월 11일 삼척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어울마당 경연대회'에 참석하였다.



▲ **정재웅** 도의원은 7월 23일 강원도장애인복지회관에서 열린 '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의'에 참석, 7월 25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춘천 코리아 오픈 태권도대회'에 참석하였다.

